



SH S 1050-B30G

Samhwa & People

vol. 22 summer 2016



SAMHWA-NCS COLLECTION 950
SH S 1050-B30G

열정, 즐거움, 성장
그리고 유니크

봄이 피었던 자리, 꽃의 기억을 간직한
열매를 만나는 계절 '여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추억도
마음으로 열매 맺겠지요.

한낮의 더위와 산들바람,
열대야의 적막과 소나기 소리의 상쾌함
서로 다른 것들이 모여
알록달록 저마다의 빛으로 반짝이는 여름

계절을 담은 삼화페인트의 2016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뿐인 당신의 특별함, '유니크'입니다.
모두의 개성이 어울려 빛을 더하는
찬란한 여름이 되리라는 기대와 함께요.



Contents

2016 summer Vol.22



S THEME

- 004 **OPEN STORY**
나만의 특별함을 찾는 시간,
유니크 라이프
- 008 **COLOR**
강렬한 컬러와 무늬의 향연,
UNIQUE COLOR
- 010 **PAINT INTERIOR**
취향저격! 나만의 공간, 개성이 돋보이는 컬러풀 하우스
- 014 **DIY**
간단한 리폼으로 만드는 인테리어 소품,
유니크 북엔드로 공간을 빛낸다
- 016 **INTERVIEW**
모던과 클래식의 공존을 모색하는
공간 크리에이터 권순복

S SOCIETY

- 022 **ZOOMIN**
열정으로 걸어온 23년 삼화라이프,
대통령 표창 수상자 추종갑 주임
- 026 **PRODUCT**
'음료수 캔 속에 페인트가 숨어 있다고?'
페인트의 재발견
- 028 **GLOBAL**
2016 캐나다 데이 in Korea, 세계와 만나는 삼화페인트
- 030 **CSR**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서울동물원 벽화 그리기 페인트 후원
- 032 **FRIENDS**
색다른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대 삼화페인트 제주 한양점
- 034 **NEWS FOCUS**

S COLOR

- 040 **COLOR-MAGAZINE**
컬러매거진



S LIFE

- 046 **HOBBY CLASS**
맥주 애호가를 양성하는 중독성 취미, 수제 맥주 만들기
- 050 **FOOD MAP**
대한민국 구석구석, 열려라 맛지도
- 052 **TRAVEL**
내 취향을 저격할 최고의 여름 휴가지는 바로 여기!
여름휴가를 위한 추천 여행지
- 054 **TRAVEL TIP**
떠나는 그대에게 건네는 꿀팁
- 056 **S CULTURE**
S MAILBOX · S QUIZ



나만의 특별함을 찾는 시간, 유니크 라이프

스티브 잡스는 오직 일에 집중하기 위해 1년 내내 같은 옷만 입었으며, 지브리 스튜디오는 특유의 느낌을 위해 구태여 까다로운 작업방식을 고집해왔다. 자신만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우리는 '유니크하다'고, '멋지다'고 말한다. 김길재



유니크, 그 자연스러운 바람

무리에 섞이고픈 심리가 유행이라면, 나를 표현하고 싶은 심리는 개성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누구나 '특별'하고 싶어해 새로운 것에 눈을 반짝인다. 편의점에서 늘 마주치던 과자들이 바나나의 웃을 입은 순간 편의점 직원은 얼마나 바빠졌던가. 유니크 스타일이 '멋짐'의 웃을 입은 데는 유명인사의 공이 크다. 낯선 오리엔탈리즘을 고집하다가 <무한도전>에서 '한방'을 만난 혁오밴드, 예쁜 것과는 거리가 먼 작화 스타일로 폭넓은 인기를 얻은 이말년 웹툰 작가가 그렇다. 변두리에 머무를 것만 같던 그들이 화제의 중심에서 '유니크 파워'를 보여준 것이다.



이색적인 것에 빠져들다

유니크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다양해진 취미활동도 그 중 하나. "취미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실증팔구 '영화감상', '독서'가 돌아왔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향수를 직접 만들거나, 전용 칼로 세밀하게 종이를 자르는 페이퍼커팅 등 색다른 취미활동이 인기. 분위기를 읽은 포르쉐에서는 휠, 전용 바디킷, 차체의 높이까지 직접 선택해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다. 패션도 달라졌다. 크롭탑, 린넨 셔츠 같은 여름 단골메뉴를 물리치고 1년 내내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이들은 해마다 자신의 스타일을 변주하는 노력으로 심지어 트렌디하기까지 하다.



공간의 재탄생, 유니크 하우스

유니크 스타일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은밀하고도 개인적인 공간, 바로 우리 집이다. 성격, 쉬는 모습, 먹는 습관까지 나에게 딱 맞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 '마조앤세디'로 유명한 만화가 정철연 작가는 집에서 작업한다는 특성을 살려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아이디어 구상용 테이블'을 배치했다. '거실에는 TV, 그 반대편에는 소파'라는 공식 대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것. 그런가 하면 영화 '인턴'의 젊은 CEO 줄리의 집은 거실, 침실을 막론하고 공간에 비해 많은 의자와 각종 테이블이 있다. 집에서조차 일을 놓지 못하는 줄리의 생활습관에 인테리어를 맞춘 것이다.

오늘이라도 집을 내 스타일로 꾸며보고 싶다면 가구배치부터 바꿔 볼 것을 추천한다. 눈뜨는 순간부터 침대에 누울 때까지 자신의 하루 동선을 떠올리며 가구를 재배치하면 비로소 '여기가 내 집이구나' 싶 어질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 벽의 일부, 밋밋한 벽이나 몰당에 가장 좋아하는 색을 입혀보자. 실패가 두려워 화이트나 그레이로 일관했 던 공간 속 나를 담은 컬러는 일상의 작은 기쁨이 되어줄 것이다. S

강렬한 컬러의 향연

UNIQUE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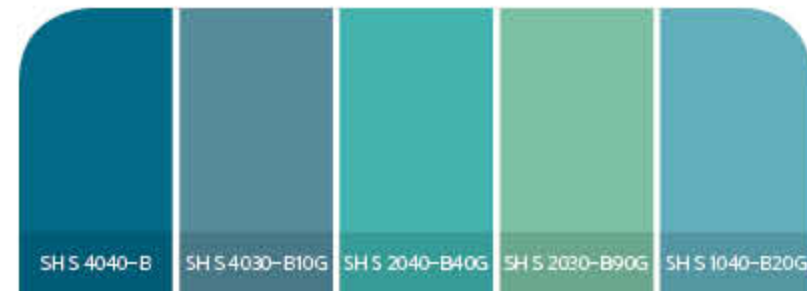
바다의 향기를 담다

MARINE SUMMER COLOR

청량한 블루는 코발트 빛 바다와 바람을 연상시켜 보는 이를 상쾌하게 한다. '블루'의 종류도 다양해 부드러운 스카이블루부터 개성 강한 아쿠아블루, 그린이 섞인 터키블루까지 천차만별이다. 차가운 색인 블루와 그린은 질고 냉랭한 기운을 뽐어내지만, 한색(寒色) 특유의 멀고 작게 느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심리적 안정과 평온함을 주는 반전매력을 뽐낸다.

Interior color tip

간단한 변화로 여름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조명을 바꾸는 것이다. 조명은 공간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품이다. 블루 계열의 전등갓을 조명에 덧씌우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시원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좀 더 확실한 변화를 원한다면 벽면의 셀프 페인팅을 추천한다. 터키블루와 아쿠아블루는 침대 헤드나 벽에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면 이국적이고 경쾌한 분위기를, 아이 방 벽면에 칠하면 집중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마법의 컬러다.



바이흐로 독특함과 개성이 '매력'인 시대가 왔다. 무턱대고 남을 따라 하는 스타일이 나를 표현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다. 거창하게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보다는 기존의 오브제를 재해석해 올 여름을 산뜻하게 해 줄 유니크 컬러를 소개한다. 글 백승아 마켓지원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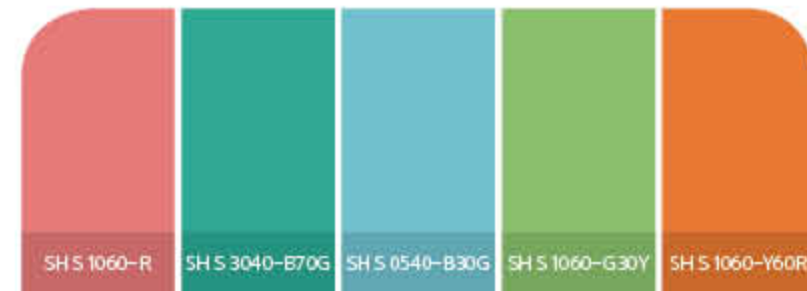
강렬한 컬러와 패턴의 이국적 무드

TROPICAL SUMMER COLOR

태양이 이글대는 열대지방의 정취는 여름에 빛을 발한다. 열대림의 짙은 초록, 총천연색을 뽐내는 꽃, 열대과일의 상큼함이 집약된 '트로피컬 컬러'. 자기주장이 강한 컬러들이 모여 만드는 화려한 이 조합은 자연이 인간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기에 열대지방의 식물을 담은 패턴이 더해지면 특별한 장치 없이도 역동적이고 경쾌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Interior color tip

트로피컬 컬러는 색 조합만으로 충분한 존재감을 뽐내는데, 보통 화려한 패턴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강약조절이 관건이다. 무조건 다양한 컬러를 믹스하기보다는 2~3가지 컬러를 선택하고, 패턴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세련된 느낌을 준다.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벽면에 부분적으로 비비드 컬러를 분할 페인팅하거나, 보테니컬 패턴을 입혀 생기를 부여할 수 있다. 소장하고 있는 소품들과 트로피컬의 부조화가 걱정될 때는 빈티지 무드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다. S





취향저격! 나만의 공간
개성이 돋보이는
컬러풀 하우스

안방부터 거실, 아이 방까지 집 전체에 통일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담은 묘수가 있다. 다른 듯 닮은 가족처럼, 이질적인 듯 조화를 이루는 '공간별 컬러풀 페인트 인테리어'가 바로 그것이다. 글김세라 | 사진제공 마르멜로 디자인



SH S 2010-R80B	SH S 6005-Y50R
SH S 0300-N	SH S 2005-Y50R
SH S 0540-G50Y	SH S 7020-R80B

1 요리와 식사를 겸하는 다이닝룸. 깔끔한 화이트 벽을 기본으로 오후의 햇살이 드는 곳에 산뜻한 블루 포인트를 줬다. 소품 역시 한 두 가지만 컬러를 입혀 공간의 표정이 더욱 돋보이도록 구성했다. 2 소품 진열과 독서를 겸하는 공간. 사용자의 취향인 모노톤에 맞춰 벽면 아래쪽만 세련된 그레이로 느낌을 더했다. 3 아내가 주로 이용하는 파우더 룸은 벽면의 위쪽만 부드러운 그린을 칠해 화사한 느낌을 연출했다. 엘트우 조명이 더해져 로맨틱한 느낌마저 든다.

4 부부의 침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을 위해 베이지 컬러의 벽면을 꾸몄다. 자칫 작적할 수 있는 공간에 침구와 액자, 화초가 어울려 편안한 느낌을 준다. 5 가족의 드레스 룸. 의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이트를 기본으로 했으며, 가구부터 벽까지 이어지는 자못한 블루 포인트로 공간에 위트를 더했다. 6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문에는 짙은 블루로 시원한 느낌을 더했다. 거실의 화이트 벽면과 어울려 산뜻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모던 인테리어, 북유럽 인테리어, 키포크 인테리어 등 수많은 인테리어 유행을 거치는 사이 벽면의 정석은 '화이트&그레이'를 벗어날 줄 몰랐다. 트렌드를 접어두고 생각해보자. 재미없는 공간에 표정이 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은 누가 할까? 우리가 잠시 잊었던 '컬러풀 페인트'다. 방송, 매스컴, 블로그 등에서는 하나같이 벽면의 색을 통일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신혼 집만 하더라도 두 사람이 살고, 독신이라 할지라도 부엌과 방에서의 행동도 기분도 다르다. 당연지사 공간마다 사용하는 사람, 장소에서의 기분이 돋보이는 편이 좋다. 인테리어를 진행한 이경희 대표는 "각자의 취향을 반영한 컬러의 페인트야말로 일상에 생동감을 주는 인테리어 요소"라며 페인트 인테리어를 평했다.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일단 '과감'해져야 한다. 잡지나 TV에서 본적 없는 컬러라도 어울릴 것 같다면 일단 시도해보라.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는 낯설지 몰라도 마주할수록 스스로의 취향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다만 초심자라면 색 배합이 아쉬울 경우를 대비해 벽 전체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것은 잠시 미뤄두자. 벽의 상하를 나눠 띠 벽처럼 하단만 칠하거나, 문틀이나 물건의 컬러 혹은 가구의 면을 나누어 일부분만 페인팅해보면 점점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S



더클래시
콘크리트 벽면 전용 하이테크 페인트 '더클래시'는 습기가 많은 내부에서도 탁월한 항균력과 은은한 광택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페인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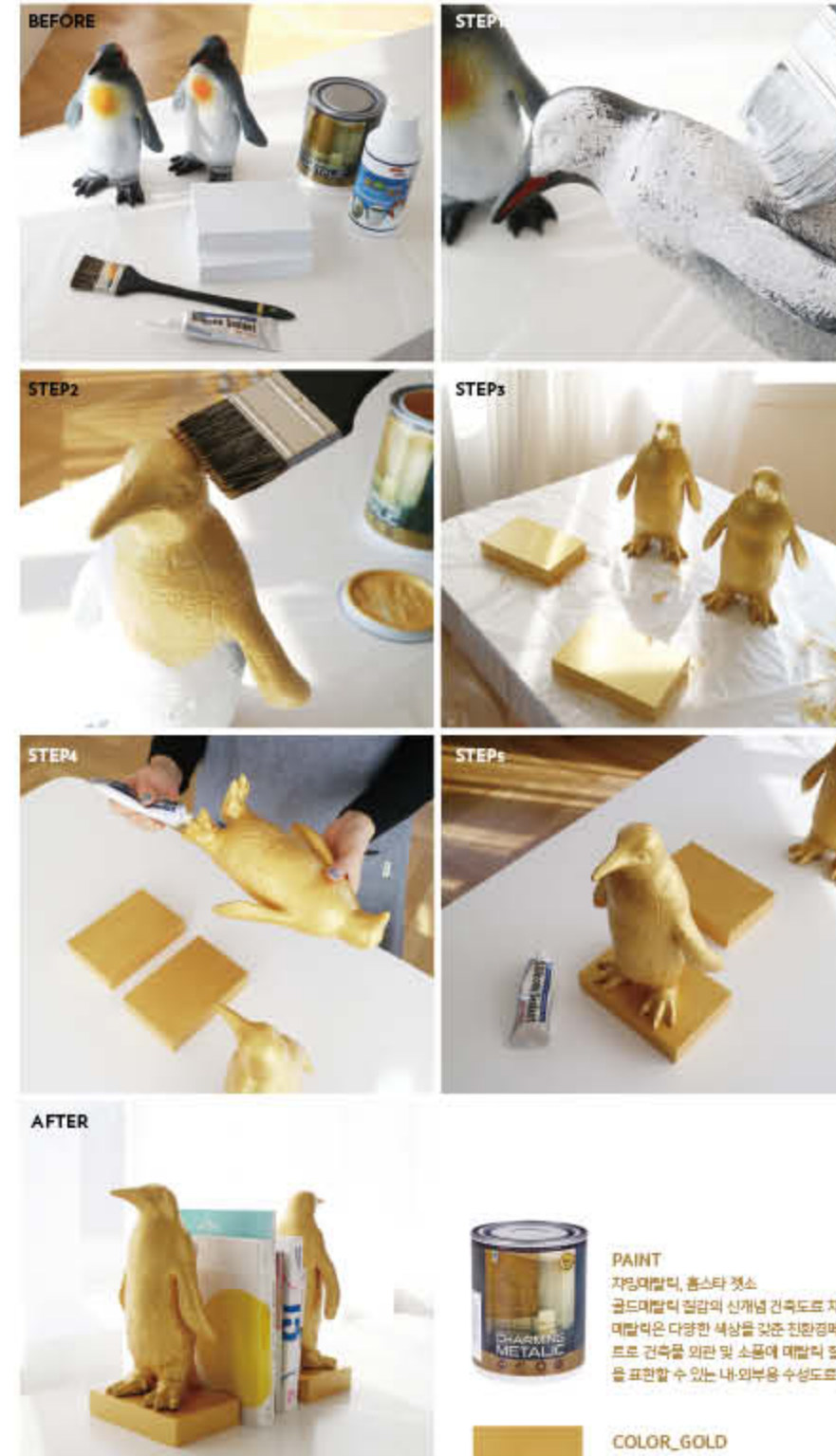
간단한 리폼으로 만드는 인테리어 소품 유니크 북엔드로 공간을 빛내다

멋진 포인트 소품으로 공간을 꾸미려다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망설인 적이 있을 것이다. 상황을 타계할 묘수가 있으니, 실증 난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셀프 페인팅 리폼이다. 손재주가 없더라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DIY로 실용적이고 유니크한 인테리어 포인트, 메탈릭 펭귄 북엔드 만드는 법을 소개한다.

글 김예슬 마켓기획팀 대리



Self-painting



BEFORE

언제 구입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펭귄 오브제. 나름 비싸게 주고 구입했는데, 오래 두고 보니 촌스럽게 느껴져 집안 구석에 방치되어 있다. 실증 난 펭귄 오브제를 리폼해 나만의 북엔드를 만들어 보자.

STEP1

페인팅 전 홀스타 젯소를 발라 접착력과 발색력을 높여준다.

STEP2

블링블링한 차임메탈릭 골드 컬러를 펭귄 바디 전체에 칠한다. 차임메탈릭은 친환경 기능성 페인트로 벽면, 가구, 소품 등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메탈릭 효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페인트 발색이 잘 나올 때까지 2~3회 정도 페인팅한다.

STEP3

펭귄을 지탱해줄 받침대에도 차임메탈릭 골드 컬러를 2회 페인팅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다.

STEP4

펭귄 바닥 면에 실리콘을 발라 받침 위에 고정시킨다.

STEP5

실리콘이 굳어 펭귄과 받침이 서로 잘 붙을 때까지 건조시킨다.

AFTER

짧은 시간에 인테리어 전문 매장에서는 불법한 유니크 북엔드가 완성되었다. 평소 즐겨보는 책을 두 북엔드 사이에 꽂아주면 끝! 집에 있는 다양한 소품과 페인트를 활용해 나만의 멋진 아이템을 만들어 보자.



PAINT
차임메탈릭, 홀스타 젯소
골드메탈릭 칠감의 신개념 건축도료 차임메탈릭은 다양한 색상을 갖춘 친환경페인트로 건축물 외관 및 소품에 메탈릭 칠감을 표현할 수 있는 내·외부용 수성도료다.

COLOR_GOLD

모던과 클래식 공존을 모색하는 공간 크리에이터 권순복

자신만의 감각과 취향을 갖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스타일에 대한 참신한 감각과 공간에 대한 통찰력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공간 디렉팅에서 인테리어, 전시 기획 및 세트 스타일링, 플라워 스타일링 등 영역을 넘나들며 아이디어 간 교집합을 찾아내는 사람, 삶 자체가 유니크한 그가 마젠타 권순복 대표다.

글 | 정철 | 사진 | 제공 | 성중윤, 마젠타

공간 디자인의 성지, 마젠타 쇼룸

서울 남산 자락, 이태원 부근에 자리잡은 아틀리에 공간인 마젠타(Magenta)는 공간 디자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들려야 할 성지(聖地)다. 클래식+모던 클래식의 콘셉트에 프렌치의 로맨틱한 해석이 더해져 모든 이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침실, 거실, 주방, 오피스, 전시 등 공간 특성에 따라 각기 베リエ이션을 달리하는 새롭고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지난 해 말 오픈해 채 1년이 되지 않은 곳이지만, 여러 우수 매거진과 언론사들이 소개하고 내로라하는 스타일리스트들이 찾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참 마음에 드는 동네죠. 남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전경이 멋있고 조용하기도 하고요.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됐어요.”

권순복 대표는 쇼룸을 열면서 기존의 프렌치 클래식이 가지고 있던, 화려하고 이국적인 스타일을 독창적인 재해석을 통해 산뜻하게 표현해냈다. 가령 오피스 룸을 심플한 여백 위주로 그려내되 엔틱한 소품과 아트 소품으로 포인트를 주고, 모던한 가구에 장식적인 오브제를 더하는 식이다. 그래서 마젠타 쇼룸은 클래식하면서 내추럴적인 느낌도 들고, 로맨틱하면서도 심플한 분위기가 풍긴다. 마치 한 공간에 다양한 세대가 어울려 공존하는 느낌이다.





획일적 트렌디함에서 벗어나는 방법

인테리어 트렌드를 살펴볼 때, 하나의 스타일이나 아이템이 대세가 되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스타일이 유행하자 너도나도 온통 북유럽처럼 꾸미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는 만족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자기 스타일이 아닌, 재미없고 불편한 것이 될 위험이 있다. 권 대표는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참신하고 감각적인 자기 스타일을 세우려면 "전체적인 조화 안에서 개성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전체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성을 담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프렌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클래식과 모던을 가미하면 재미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프렌치 클래식, 프렌치 모던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스타일링의 기본 원칙이 '사람에 대한 배려'여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안방은 부부가 서로 공유하는 정서가 담겨 있어야 하며, 아이방은 아이의 정서, 주방은 아내의 정서, 서재는 남편의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다. 이것은 인테리어뿐 아니라 형태, 소재, 색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스타일이라고 강조한다.

한-불 문화교류에 역할을 다하고 싶다

권 대표는 1995년 리빙 스타일리스트로 이름을 알린 이래 20년 넘게 공간 디자이너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여러 작업과 프로젝트를 맡아 온 그에게 2016년은 어느 해보다 특별한 해가 될 것 같다. 바로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 수차례 프랑스의 여러 도시를 방문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고 탐구하며 프렌치를 디자인적 모티프로 여겨온 만큼, 권 대표에게 올해는 매우 의미 깊다. "어려서부터 화려한 주름의 원피스나 액세서리를 좋아했던 것을 보면 프렌치와의 만남은 운명이었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도 한국인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것 - 한옥, 한복, 한식, 풍속 등에서 정겨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역할을 찾아 일하고 싶고, 우리 젊은 인재들을 프랑스로 데려가고 또 프랑스 디자이너를 한국에 소개하고도 싶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스타일이 갖는 디자인을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문화계에 알리고도 싶어요. 아주 거대한 일이 될 거란 생각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지만, 설렘과 기대가 더 커요."

권순복

국내 대표적인 공간 디자이너, 잡지와 광고 화보 촬영, 리모델링 시공, 브랜드 팝업 스토어 스타일링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 최신 인테리어 흐름을 이끌고 있는 트렌드 세터로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알리는 스튜디오 오인마틴타 소를 운영한다.

공간 디자이너의 꿈에 담긴 권순복 대표의 소풍에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많다. 낭만시대 예술가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자를 미시며 담소를 나누었을 법한 유럽식, 저문한 색상에 클래식함을 더한 장식, 여행에서 손수 구입해온 아기자기한 소품 등 눈에 가는 곳마다 흥미롭다.

마틴타는 프렌치의 이상향이 가득한 또 하나의 세계다. 시루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이 살아 있고, 리듬감 있는 BMW 체크 비단도 센스 있게 느껴진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기 다른 형태인데, 구조적으로는 프렌치로 통일되어 어우러진다. 마치 실포니에서 각 악장이 구분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악곡을 이루는 것처럼 신묘하다.

색채는 인테리어의 40% 이상을 차지

마틴타 쇼룸을 둘러보면서 권 대표에게 "인테리어 작업에서 색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에게서 다소 놀라운 대답을 얻었다.

"인테리어에서 색채의 비중은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세련되고 유니크함을 더해줄 존재로 색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예요. 저마다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갖기 원하잖아요? 형태나 소재만으로는 단순함을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기에 다채로움과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색채가 가진 매력이죠."

프렌치 스타일의 특성상 색상의 중요성은 다른 스타일보다 두드러지는데, 그래서 페인트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하다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삼화페인트다. "작업 중에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타사 페인트보다 건조가 빠르고 환기성도 좋아서 작업하기 너무 편해요. 또 색상 구현력이 뛰어나서, 작업할 때 색상이 정확하게 나오니 참 좋습니다."

최근 권 대표가 작업한 모든 공간에는 예외 없이 삼화페인트가 쓰였다.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 다지만 장인이 최고의 도구를 만났을 때 더욱 뛰어난 결과물이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프렌치 스타일의 중심에 서서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권순복 대표.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의 스타일에 담긴 철학과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모든 인테리어의 궁극적 지향점이 인간에게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S

세상의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삼화인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반이 지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따가운 햇살만큼이나 삼화인의 열정도 뜨겁지요. 여기 삼화인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보고 다양한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화인이 추천하는 컬러 트렌드와 문화 정보를 다채롭게 실었습니다. 더욱이 세상 곳곳에 빛이 필요한 곳을 찾아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회 활동 소식도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런 삼화인들이 있기에 세상은 조금쯤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S SOCIETY

- 022 ZOOM IN
- 026 PRODUCT
- 028 GLOBAL
- 030 CSR
- 032 FRIENDS
- 034 NEWSFOCUS

S LIFE

- 046 HOBBY CLASS
- 050 FOOD MAP
- 052 TRAVEL
- 054 TRAVELTIP
- 056 SCULTURE

S COLOR

- 040 COLOR-MAGAZINE



열정으로 걸어온 23년 삼화라이프

대통령 표창 수상자 추종갑 주임

이른 아침, 텅 빈 현장을 점검하는 매서운 눈초리.
이내 직원들과 마주하자 사람 좋은 웃음이 얼굴에 퍼진다. '사고 없이
작업현장을 이끌어온 최연소 관리자', '새로운 발상으로 품질향상에
공헌한 우수 관리자' 추종갑 주임을 만나보자.

글 김세라 | 포토그래퍼 김선재

1993년 2월 삼화페인트가 서울 창동에 있던 시절, 한 청년이 입사했다. 열일곱 어린 나이로 도화동 신발공장부터 건축현장까지 잔뼈가 굵은 사내였다. 그 유명한 '삼화페인트'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출근해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던 선배들에게 매료되었던 그가 어느새 자신이 우러러보던 선임의 자리에 있다. 현장 관리자로 일하는 지금 포장이나 생산 라인이 아닌 안산공장 전체가 그의 활동 무대다. 질소 밸브를 조이고 있는가 하면 어느새 아들뻘 즈음 되어 보이는 직원의 여자친구 이야기에 흥미진진한 혼수를 두고 있다. 관리자에 대한 그의 신조는 '다가가기 쉽고, 어려움을 터 놓기 편한 상대'여야 한다는 것. 잔소리 같은 안전주의도 가까운 상대가 말하면 다르게 들리기 때문이란다. 반들반들 손때 묻은 그의 작업 현장처럼, 뜨거운 관심과 노력으로 삼화페인트의 각종 상을 휩쓸어온 작은 거인 추종갑 주임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애정에 기초한 안전수칙

추종갑 주임은 업계에서 유명한 현장 관리자다. 그 이면에는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날도, 피곤함에 절여 작업을 마무리할 때도 오직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염려한 그의 노력이 깃들여 있다. "신입시절 페인트 통을 쌓다가 왼손 새끼손가락 끝이 잘리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작업 안전이 중요하구나 몸으로 느낀 순간이었어요."

사고의 경험을 교훈 삼아 그는 자신은 물론 주변 동료의 작업에까지 철저히 안전수칙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추종갑 주임이 관리자로 활약하는 안산공장은 이른바 '안전공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명예로운 별명 뒤에는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공장을 꼼꼼히 점검하는 그의 노력이 있다. "저는 제 손을 담보로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우리 직원들만큼은 꼭 다치지 않고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현장 사고 예방 요령을 문자 목소리부터 달라진다. "어떤 작업이든 시작하기 전에 꼭 작업상황을 시뮬레이션하도록 교육해요. 내 몸의 위치, 작업 중 동선을 꼼꼼히 체크한 뒤에 작업대 주변에 방해가 될 물건은 다 치우는 것이 몸에 밸 때까지 잔소리로 일관하죠." 이 과정이 습관화되면, 거의 모든 사고가 예방된다고. 여기에 추종갑 주임만의 특별함이 더해지니, 바로 '친근함'이다.

친근함이 불러온 변화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해요?" 거꾸로 질문을 받은 기자가 당황하자 추종갑 주임이 환하게 웃는다. "실질 웃으며 가벼운 농담을 하는 상사가 편한 법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로 원성도 좀 사고 말이지. 그렇게 편한 사이가 되면, 작업현장의 실수를 솔직히 말하기 쉬워져요."

편안한 캐릭터가 되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면담 없이도 서로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동료는 물론 스스로도 출근이 더 즐거워진 것. 현장 비품이 떨어지는 사소한 문제부터 개인사까지 문제가 생기면 김반장처럼 자신을 먼저 찾는다고 자랑스레 이야기한다.

'추종갑 주임 스타일'은 동료뿐만 아니라 팀장과의 관계에도 통했다. 추종갑 주임에게 진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팀장에게 사내 익명 건의함을 통해 감사의 뜻이 담긴 편지로 마음을 표현했던 것.

"이른 나이에 관리직을 맡으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제게 직원들과 지내는 법부터 업무요령까지 진솔한 조언을 해주신 점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직접 낭독하라는 주변의 성화에 추종갑 주임이 달아오른 얼굴로 자신이 쓴 감사편지를 낭독하던 일화는 지금도 술자리 단골 화제거리다.



저는 제 손을 담보로 안전의 중요성을 배웠지만, 우리 직원들만큼은 꼭 다치지 않고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2016 근로자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근로자의 날 추종갑 주임은 작업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의 수훈을 안았다. 장기간 보관 시 변질될 수 있는 페인트의 특성을 고려해 상단이나 하단 중 한쪽만 질소(보존제)를 채우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하단에 모두 질소를 채우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것. 테스트 결과 실제로 페인트 보존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소비자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현장의 노하우를 녹여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의 활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용량으로 들어오는 원자재가 겨울철 낮은 온도에 굳어버려 역화에 품이 들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 잔량이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한 것. 기존 1,000kg씩 들어오던 원자재를 500kg씩 나눠 들여오자 두 가지 문제가 수월히 해결됐다. 추종갑 주임은 "대통령 표창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작업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꿈이 있냐는 질문에 그는 "이미 이루었다"고 말한다. 현장 관리자가 꿈이었는데, 행운이 따라 일찌감치 이룰 수 있었다는 것. 목표를 이룬 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꿈이 자랐다.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꾸리고 싶어요. 또 제가 이 자리를 떠난 후에 누구라도 안전현장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의 새로운 꿈입니다."

쇠털 같은 우리의 매일 속에 뿌듯했던 하루는 얼마나 될까. 꿈을 지냈기에 하루 하루 열정적일 수 있었던 추종갑 주임에게서 목적 있는 삶의 소중함을 배운다. S

‘음료수 캔 속에 페인트가 숨어 있다고?’ 페인트의 재발견

삼화페인트 제관용 도료 ‘캔가드’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음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음료에 삼화페인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음료 캔의 내외부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사실, 이번 호에는 제관용 도료 이야기를 소개한다.

글 박철희 마켓기획팀 대리

삼화페인트는 제관용 도료 캔가드(CAN GUARD)의 전용 공장을 갖추고 20여 년간 제품을 생산해왔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포장 용기인 캔에 사용되는 도료인 만큼 전형적인 B2B 제품이지만, 최근에는 수입 도료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화페인트는 판로 개척과 시장 트렌드 주도에 초점을 맞춰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제관용 도료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구분하는데 식품 및 음료 등 내용물의 장기 보존을 위한 내면 도료와,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고 표면을 보호해 소비자(구매자)에게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외면 도료로 나뉜다.

보존성을 높이는 내면 도료, 다양한 색상 구현을 위한 외면 도료

내면 도료를 사용해야 하는 주된 이유는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물성을 기본으로 한 내부식성과 내살균성 등의 기능이 필요하다.

외면 도료는 소재와의 부착성과 내살균성을 높이기 위한 도료로서 하도 코팅제와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는 잉크, 그리고 표면을 보호하는 바니시로 구성된다. 작업 순서를 살펴볼 때 철이나 알루미늄 소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잉크를 입히기 전에 ‘캔가드’의 하도 코팅제를 적용하고, 이후 각사의 브랜드별 디자인 작업을 완료한 다음 바니시를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캔 음료는 사람들이 쉽게 찾아 섭취하는 제품이므로, 제관용 도료는 대부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승인 규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우리에게 너무도 간편한 존재였던 캔. 일상 생활 속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탄산음료, 커피, 차, 과자 등에 삼화페인트의 제관용 도료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만큼, 이제는 한 번쯤 이들 제품을 접할 때 삼화페인트 ‘캔가드’를 상기해보면 어떨까 싶다. S

캔에 담긴 페인트의 비밀, 캔가드에서 찾다



캔 또는 철판에 사용되는 페인트를 일반적으로 제관용 도료라 칭한다. 제관용 도료로 개발된 삼화페인트의 캔가드는 음료를 담은 캔뿐만 아니라 통조림, 마개, 스프레이 캔, 어류와 육류, 과일과 야채, 과자 등을 포장하는 용기에도 사용된다. 캔가드는 식품과 음료 캔 내용물의 장기 보존과 안전성을 위한 내면 도료와,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고 외부 표면을 보호하는 외면 도료가 있다.

삼화페인트의 제관용 도료는 코카콜라, CJ, 동원식품 등 여러 기업에 공급되어 사용된다. 이처럼 삼화페인트는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다.

2016 캐나다 데이 in Korea, 세계와 만나는 삼화페인트

삼화페인트, 2016 캐나다 데이 참가

삼화페인트가 주관 캐나다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하는 '2016 캐나다 데이'에 협찬사로 참여해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소재 '덜위치칼리지(Dulwich College) 서울영국학교'에서 진행된 캐나다 데이는 캐나다의 건국 149주년을 맞아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로, 삼화페인트는 2014년부터 3년간 공식 협찬사로 참여했다.



캐나다 데이(Canada Day Celebration)란?

캐나다가 하나의 국가로 탄생한 1867년 7월 1일을 기념하는 행사로, 캐나다의 가장 큰 국경일이다. 공식적인 행사는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서 열리고, 캐나다가 진출한 세계 각국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관 캐나다 상공회의소가 행사 주최를 맡아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증진은 물론 캐나다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해왔다. 올해는 BBQ 버거와 샐러드, 파스타를 즐길 수 있는 버거존을 비롯해 캐나다산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비어존, 사스카툰 베리를 토핑으로 얹은 아이스크림과 메이플 과자를 즐길 수 있는 스낵존, 아이들이 워터풀과 에어 바운스를 즐길 수 있는 키즈존, 이외에도 밴드 공연과 게임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관 캐나다인과 한국계 캐나다인 등 캐나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여러 가지 즐길 거리, 볼거리가 있는 부스들을 오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고, 삼화페인트가 마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삼화페인트 부스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플라로이드 포토존과 페인팅 체험존이 운영됐는데, 신개념 무스형 스테인 '스무디스테인'을 사용해 포토 프레임을 만들어보는 특별한 이벤트에 참가자들이 대거 몰렸다. 포토 프레임 만들기에 참여한 김우현 씨(서울 강동구 천호동, 42세)는 "스폰지에 가볍게 뿌려 나무 위에 퍼 바르면 되니 너무 편리하다"며,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페인팅을 하면서 참 즐거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S



캐나다 데이에 사용된 신개념 무스형 페인트 '스무디스테인'

스무디스테인은 DIY 가구 리폼용으로 사용되는 무드스테인용 신개념 무스형태로 개발한 제품이다. 필요한 양만 짜서 사용할 수 있고, 흘러내리거나 얼룩질 걱정이 없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 소비자의 작업성과 환경성을 고려해 개발된 제품으로 <무스타입 수성스테인 에어로졸 조성물> 국내 특허를 취득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요

아름다운 서울동물원 벽화 그리기 페인트 후원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공원인 서울대공원에 삼화페인트가 '동물원 벽화거리' 행사에 참여하고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후원했다.

올해 서울대공원 동물원 벽화 작업은 삼화페인트와 서울대공원, 계원예술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어 민(民), 관(官), 학(學)이 결합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계원예술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및 학생 60여 명을 비롯해 일반 시민 가운데서도 참여자를 더해 예년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다. 이에 삼화페인트는 벽화에 필요한 페인트를 지원하기로 하고, 시각과 후각에 민감한 동물들을 배려하여 대표적 친환경 페인트 제품인 '아이생각' 페인트를 후원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 행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 내 100주년 기념광장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천진난만한 기린, 하마의 물놀이 모습, 두바이로 떠난 사자들이 행복하게 초원

을 노니는 그림 등 다양한 주제로 그려졌다. 현재 서울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동물들의 다양한 스토리가 담긴 스토리텔링 벽화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원을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 일반 2D 벽화뿐만 아니라 트리아트 벽화, 일러스트 벽화 등을 작업해 더욱 다채롭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다. 삼화페인트는 앞으로 단순한 페인트 후원을 넘어, 사회와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상생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지속할 계획이다. S



'아이생각' 아크로 외부용
벽화작업에 쓰인 '아이생각' 아크로 외부용 페인트는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하여 건축물 외부 마감재용으로 사용된다. 인체에 유해한 유기용제 및 중금속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환경마크를 획득했다. 작업 시 냄새가 거의 없고 색상이 선명해 여러 번 덧칠하지 않아도 뚜렷한 느낌을 낼 수 있다.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스무 번째 이야기 색다른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삼화페인트 제주 한양점

새벽 6시, 제주의 이른 아침을 20년간 열어온 제주 한양점 우상협 총괄대표.
하루의 거름도 없는 성실함과 세심한 배려가 깃든 전략으로
제주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의 페인트 인생을 들여다보자.
글 김세라 | 포토그래퍼 이종철



대리 강태준

장인어른, 장모님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끈끈한 정을 쌓아가고 있는 행운의 사위입니다. 삼화페인트에 대한 고객 반응이 좋아서 매일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총괄대표 우상협

반갑습니다. 삼화페인트 제주 한양점 총괄대표 우상협입니다. 아내인 박현미 대표와 함께 20년째 삼화페인트 제주 한양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손님들의 만족하는 모습이 저희 가족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대리 우지민

이른 아침 페인트 시공에 나가시는 아버지와 대리점 살림을 알뜰하게 책임지시는 어머니를 본받아 대리점 운영의 꿈을 키워왔어요. 성실히 일하시는 부모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숨겨진 열정

"아이고 우리 만나러 멀리 제주까지 오시고."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는 우상협 대표의 얼굴에 제주 햇살의 흔적이 짙게 새겨져 있다. 제주에서 삼화페인트 대리점을 운영한지도 올해로 벌써 20년. 오픈 초반에는 '페인트만 사도 시공해주는 마음씨 좋은 사장님'으로 불렸단다. 별도 비용 없이 시공까지 해주기에는 박차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타까워서'라는 답이 돌아온다. "대리점을 시작하기 전에도 페인트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삼화페인트 제품이 좋다는 것을 잘 알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페인트 사용에 미숙한 소비자가 많아서 좋은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속상해서 직접 시공해주며 삼화페인트의 장점을 알리려 노력했죠." 자부심을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의 장점이 소비자에게도 오롯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상협 대표의 바람이다.

'24시간이 모자라' 제주 한양점의 인기 비결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도 손님이 끊임없이 드나들어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제주 한양점은 분주했다. 비결은 바로 '제주다운 전략'이라고 한다. 우상협 총괄대표는 처음 제주에서 시장조사를 하다가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다를 건너 제품이 배송되는 제주도의 특성상 물류비가 덧붙어 소비자가 오를 수밖에 없던 것. "그래서 방법을 찾았죠. 필요한 페인트가 반 차 분량이면 수성페인트나 에폭시 같은 주력제품으로 한 차를 가득 채워서 배송받는 겁니다. 물류비가 빠지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내려가죠." 여기에 제주도에서 구하기 어려운 시공 장비를 대여해 주는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시공 장비는 평소에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빌려 써요. 그런데 제주도는 빌릴 곳이 마땅치가 않아 다들 고생하지요. 마침 페인트를 사러 갔더니 장비도 빌려준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주 한양점의 세심한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장갑, 조끼, 모자 등 처음 시공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상품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며 소비자를 사로잡은 것.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 지역에 적합한 색다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대리점을 났다면 다른 서비스를 했을 거예요." 냉철한 시장 파악,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야말로 제주 한양점이 사랑받는 이유다.



삼화페인트와 제주 한양점의 20년 우정

제주 한양점이 오픈한 이래 본사와의 관계는 늘 돈독했다. "영업부서 분들과 만날 일이 많은데, 작은 문제도 늘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어요. 정이 들어 지금은 가족 같아요." 대리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20년을 쉼 틈 없이 일해왔으니 이제는 우리 아들과 사위가 항상 사랑받는 대리점이 어갈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간 느껴보지 못했던 휴식의 달콤함도 만끽해볼 참이에요."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이 더 돋보일 수 있었던 숨은 주역, 제주 한양 대리점의 빛나는 미래를 기원한다. S





삼화인의 가슴으로 광주 빛고을 달리다

삼화페인트 광주·전남권 가족,
제16회 5.18 마라톤 대회 참가

삼화페인트 광주영업소 직원과 관할 대리점 사장 및 가족들이 5월 21일 상무시민공원 경기장에서 열린 제16회 5.18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지역 판촉 활성화 및 고객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광주영업소 직원과 대리점 점주들이 상호 교류의 기회를 가진 것.

이번 대회에는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소속 회원 43명이 동참해 총 150여 명이 삼화 가족으로 참여했다. 경기장 옆 삼화페인트 캠프에서는 광주여자대학교 미용학과 학생 10여 명이 페이스페인팅과 네일아트 등을 시연해 인기를 끌었다. 여성 참가자들에게는 네일아트들, 어린이들에게는 태극기와 토끼 등 다양한 페이스페인팅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삼화 가족은 각각 하프 코스, 10km 코스, 5.18km 코스 중에서 선택해 출전했다. 자녀와 함께 5.18km 코스를 완주한 한 여성 참가자는

“아이와 함께 마라톤을 하면서 체력도 다지고, 5월 정신을 되새기는 교육의 기회가 된 것 같아 보람차다”고 말했다. 광주영업소 김용민 차장은 “아내와 아이들과 5.18km 코스를 달렸는데 재미도 있었고, 서로의 마음도 한결 가까워진 것 같다”며 “다음 대회에서는 10km에 도전해 완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 순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장재길 점주는 “삼화페인트가 이렇게 의미가 큰 행사에 불러주어 많은 감동을 받았다”면서 “삼화페인트를 더욱 널리 알리고 다음 대회에도 꼭 참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영업소는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를 통해 여러 거래처들과 결속력을 강화했고,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를 비롯한 고객들에게도 삼화페인트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또한, 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일반인에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도 얻었다 S



MINI INTERVIEW

김종욱 광주영업소 소장

이번 5.18 마라톤 대회에 대한 소개와 참가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이 마라톤 대회는 36년 전 민주주의를 갈망했었던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올해 16년째가 됐습니다. 참가 인원이 1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에 단체 참가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삼화페인트가 70년 동안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준 대리점과 거래처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상생의 관계를 다짐하고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에 함께 참가한 분들을 알려주세요.

먼저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주영업소와 거래관계를 맺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약 100여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대리점, 전문건설업 업체, 인테리어 관련 업체, 현장 실무 전문가 이외에도 특별히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마라톤 동호회인 '담박질림' 회원들도 함께해주셔서 기쁜 마음입니다. 또한, 영업소 가족들도 전원 참여해 직원 간의 교감과 단합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 참, 광주여대 학생들이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체험을 맡아주어 삼화페인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날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기타 다른 행사나 홍보 관련 활동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삼화페인트와 함께하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삼화페인트와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모두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화 가족에 대해 파이팅과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삼화 가족들의 열정이야말로 난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저력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낸다면 보다 건실한 삼화페인트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거라 믿습니다. 삼화페인트, 파이팅!

NEWS FOCUS

삼화페인트, 감온도로 관련 특허 취득



색 변화 전

색 변화 후

지난 5월, 삼화페인트는 온도에 의해 색이 변하는 '시온도로' 중 하나인 감온도로의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감온도로는 온도에 반응해 색이 변하는 도료로, 삼화페인트가 취득한 특허는 '감온 특성이 있는 다층막이 형성된 기재 및 이의 코팅방법'이다.

이 도료의 명칭은, '1액형 가열 건조형 도료'로, 70℃ 이상의 열을 가하면 색이 변해 눈으로 온도를 인식할 수 있다. 삼화페인트는 이 성질을 조리도구에 적용, 시각을 통해 요리하기 좋은 때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후에는 고데기, 다리미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용시켜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도료는 기존에 개발된 세라믹 감온도로와 비교해 소재 전 처리 과정 간소화, 도료 숙성 과정 생략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 생산성 증대, 비용절감의 효과가 크다. 이번 특허 취득에는 기존에 개발된 '특수 실리콘 수지' 도료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페인트는 국내 건축용 도료 1위 업체 자리를 지키면서, 앞으로 생활 분야에서도 우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글 김필영 연구지원팀 선임연구원

삼화페인트 플랜트용 내화도로 '미국 UL1709 인증' 획득

삼화페인트공업(주)의 석유화학 플랜트용 내화도로 'CHARREX PFP-1000(이하 CHARREX)'이 미국 UL1709 인증을 획득했다. UL(Underwriters Laboratories, 유엘)은 글로벌 안전규격 개발 및 인증기관으로, 전세계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미국 안전규격이다. 이번에 획득한 UL1709 인증은 세계적으로 극히 일부의 브랜드만 보유한 것으로, 국내 기업 중에는 삼화페인트가 있다.

UL1709 인증의 주인공인 'CHARREX'는 일반 건축용 화재보다 훨씬 위험한 조건인 석유, 가스 등의 화재에 견디도록 개발되어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의 강재 보호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또한, 기존 내화구조 제품에 필수요소였던 그물망 없이도 최대 4시간까지 내화 성능을 발휘해, 그물망 작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허귀형 중앙연구소장은 "국산 기술로 미국 UL1709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당사뿐 아니라 국내 내화도로 기술사에서도 의미를 갖는다"며 "기술 기반의 해외시장 확대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핵심 기술 개발과 국산화 노력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김현정 경영관리팀 과장



시험 전

시험 후

삼화페인트, 올해 사회취약계층 850가구 주거환경 개선



삼화페인트가 환경부와 손잡고 전국 사회취약계층·어르신활동공간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삼화페인트와 환경부는 '2016년 사회취약계층·어르신활동공간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업무 협약식을 맺었다. 환경성질환에는 아토피, 천식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이 해당한다.

삼화페인트는 2013년부터 친환경페인트 후원기업으로 환경부와 함께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 소재 사회취약계층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에 참여해왔다. 이번 업무 협약식을 계기로 올해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사회취약계층 8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이생각'을 포함한 친환경 페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배 마케팅본부장은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 등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한 곳에 자사의 친환경페인트가 쓰일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김현정 경영관리팀 과장

눈비가 와도 미끄러지지 않는 '슬립 스톱'



미끄럼 사고는 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위해사고다. 비가 자주 오고 습기가 많은 여름이나 눈이 오고 얼음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겨울이 특히 위험하다. 삼화페인트는 사람들의 미끄럼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 연구를 통해 성능이 우수하고 작업성이 뛰어난 눈슬립 파우더 '슬립 스톱(SLIP STOP)'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마치 라면 스프를 물에 타듯이 도료에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도료 4L기준 1팩(150g)씩 혼합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 있다. 이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도료는 에폭시와 우레탄 바닥 코팅제이며,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만한 곳이나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한 장소에 사용할 때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일본, EU 등에서는 보도 미끄럼 저항 안전기준을 40BPN(보도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 값으로 나타낸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삼화페인트는 눈슬립 파우더 '슬립 스톱'을 도료에 혼합했을 때 42BPN의 결과를 나타내어 세계적 수준의 안전기준을 달성했다.

글 박철희 마케팅팀 대리

NEWS FOCUS SUBSIDIARY

'최고의 물류 품질과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주)삼화로지텍

고객들의 요구는 시대적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삼화페인트는 물류서비스 부문 자회사인 삼화로지텍을 설립했다. 고객 지향의 고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류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삼화로지텍을 소개한다.

2014년 2월 설립된 삼화로지텍은 모회사인 삼화페인트의 제품(도료) 배송에 대한 관리, 보관 및 재고 관리 일체를 담당하고 있다.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의 고객만족을 위해 최고의 물류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물류 네트워크의 장점을 결합한 물류 서비스와 신사업 모델 개발을 통해 차세대 일류 물류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삼화로지텍은 사업 총괄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사업본부 체제로 물품 배송 및 관리 등 배송에 관한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출하팀, 창고의 운영 및 재고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팀,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실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규모로는 약 70여 명의 임직원이 지입 차량 120대를 운영하며, 다수의 협력사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권역별 출하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시화출하소와 김해출하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주공장에도 출하소를 두어 삼화로지텍에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러한 거점별 출하소의 운영은 삼화로지텍이 종합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설립 3년차인 신생 물류기업이지만, 앞으로 종합적인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글 임형빈 삼화로지텍 선임차장



'IT 서비스의 첨단화, 세계화를 이끕니다'

(주)에스엠투네트웍스



(주)에스엠투네트웍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첨단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한발 앞선 기술 플랫폼과 최신 솔루션으로 국내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앞당기고 있다. 에스엠투네트웍스는 전산화 개발과 전산 통합, 유지보수 등을 운영·관리하는 기업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IT 자산관리, 시스템 복구, ERP 솔루션 공급으로 명성이 높다. 또한, 커뮤니티 관리, 고객 서비스, 브랜딩, 홍보, 가맹고객 발굴, 소셜 CRM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이 고객이나 경쟁사 또는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략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사업본부

SI사업부: 삼화페인트 본사 및 계열사 전체의 경영정보시스템 개발과 운영, 그리고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업무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업부 내에는 운영팀, 인프라팀, CSP팀 등 3개의 팀이 있으며, 특히 인프라팀은 최적의 상태에서 경영정보시스템이 이용될 수 있도록 평촌

IDC센터를 운영하고 모든 IT 인프라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솔루션사업부: 서비스개발팀, 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RP시스템 개발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ERP/MES/PLM), 신규 솔루션개발, 클라우드 서비스(salesforce) 구축사업 등의 파트너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신규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대외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다. 컨설팅사업부: 컨설팅사업부는 삼화페인트 본사 및 계열사의 경영혁신과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외 전문컨설팅 비즈니스 사업으로 확대에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마케팅사업본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관점 중심의 기업 비전의 변화를 유도, 제품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대한 경쟁력 강화, 고객 데이터 분석 및 분석적 스킬 고도화, 360도 전방향 중심의 고객여정관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등을 서비스하는 부서이다. 글 허현아 SM2 사원

글로벌 컬러 이슈 소개 GLOBAL COLOR ISSUE

애플 신형 아이폰, '딥 블루' 컬러가 추가된다

애플이 올해 가을에 선보일 아이폰7(가칭)에 '딥 블루' 컬러가 추가될 전망이다. 일본 애플 관련 블로그 '미디어 맥오타카라'에 의하면, 9월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아이폰 색상은 실버, 골드, 로즈골드, 딥 블루 등이며, 새로 추가된 딥 블루는 기존의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대체하는 컬러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스페이스 그레이는 블랙 컬러의 도장이 벗겨지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컬러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딥 블루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대체한다는 소식에 의심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맥오타카라



© NAJA

유명 란제리 브랜드 'NAJA', 완벽한 'Nude' 컬러 출시

최근 NAJA에서는 7가지의 nude 컬러 란제리를 출시했다. 고전의 nude 컬러에 대한 개념을 깬 '인종차별 없는 nude(Nude)'라는 콘셉트로, 세계의 모든 여성의 피부색에 맞는 컬러를 목표로 한 '모두를 위한 nude(Nude for all)' 컬렉션이다. NAJA는 "nude 컬러가 하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건 무례한 일(One nude, so rude)"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7가지 nude 컬러 중 '01' 컬러는 핑크에 가까운 베이지로 베네수엘라 출신 발레리나가 모델로 나섰고, '02' 컬러는 한국계 여배우 장민지가 참여해 한국인 피부에 가장 적합한 컬러라는 평가를 받았다.

컬러도 패턴도 DIY하는 시대

구찌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DIY 스테이션'을 런칭했다. 나비, 뱀, 꿀벌 등 다양한 자수 패턴의 패치를 자신의 가방에 붙여 나만의 백을 디자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향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글의 스마트폰에서도 DIY 상품인 'ARA(아라)'가 올해 말 개발자용으로 나올 예정이다. 카메라, 스피커, 배터리, 지문인식센서, 보조화면 등 다양한 모듈을 연결할 수 있고 사용자 취향에 따라 컬러도 부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GUCCI



SH S 5020-Y40R

SH S 0500-N

SH S 1510-R60B

SH S 1510-Y80R

SH S 4040-G40Y

SH S 6030-R90B

국내 가장 트렌디한 공간

New Phases of Luxury_ 2016-2017 TREND

럭셔리 개념이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자 경험과 첨단 테크놀로지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현재 럭셔리는 실용적이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를 강조하기보다는 일반 대중과의 편안한 소통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6월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MCM의 '2017 S/S 런던 컬렉션 맨즈' 패션쇼에서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한 'MCM X 크리스토퍼 래번(Christopher Reaburn)'의 캡슐 컬렉션이 공개됐다. 영국의 신예 디자이너 크리스토퍼 래번은 군복을 재활용한 '리메이드(Remade)' 디자인으로 유명하다. 이번에 그는 MCM의 비세토스(Visetos) 원단을 리메이드 디자인으로 재해석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원단을 활용해 '21세기 글로벌 노마드를 위한 여행'이란 테마를 지속가능한 럭셔리 패션으로 새롭게 조명했다. MCM은 창의적인 소재를 활용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은 올해 컬렉션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럭셔리(Sustainable Luxury), 참여형 럭셔리(Inclusive luxury)' 브랜드라는 비전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화장품 단일 브랜드 중 국내 최대 규모인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서울 도산대로 소재)는 지난 3월 오픈 이후 2030세대뿐 아니라 3050세대들도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적인 건축가 듀오 'Neri & Hu'가 디자인한 이곳은, 기하학적인 브라스(Brass) 격자 인테리어가 럭셔리함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내외부의 커다란 개방감을 준다. '아시아의 등불'이라는 콘셉트의 랜턴은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동시에 아시아의 미(美)를 잘 담아내고 있다. 또한, 바닥과 계단 전반에 사용된 원목 소재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럭셔리를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추어 보면, 럭셔리는 외형적 가치를 넘어 고품격과 평온함이라는 내면적 가치를 포함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까지 내포한다. MCM과 크리스토퍼 래번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엿보이는 지속가능성이 올리브 컬러와 다크 인디고 컬러로 표현되었다면,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보이는 헤리티지의 재해석은 쉬머링 브라스 컬러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리석의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 또한 원목의 샌드 컬러와 함께 이 시대의 럭셔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 소재에 있어서는 브라스 메탈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투명한 유리조명과 조명이 메탈 효과를 확장시킨다. 원목과 대리석 등의 천연 소재가 유리창 너머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자연친화적 럭셔리 무드를 완성한다.

글 김효정 컬러개발팀 주임연구원

이달의 컬러 제안 MONTHLY COLOR POINT



JULY KEY COLOR Aquamarine

맑고 투명한 컬러로 청량한 느낌을 주는 Aquamarine은 기분 전환에 효과적이다. 화이트 인테리어의 도어 컬러로 사용하면 생동감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SH S 1050-B30G



AUGUST KEY COLOR Forest Green

숲 속에서 산림욕을 하는 듯 평온함을 주는 Forest Green은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컬러다. 침실 벽면을 페인팅하거나 가구, 침구 등에 활용하면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다.

SH S 6020-B7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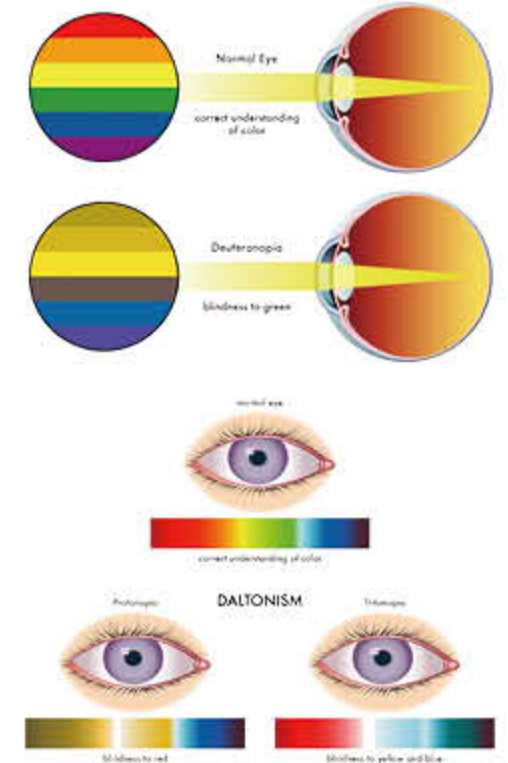
컬러 디자이너들의 컬러 이야기 눈으로 보는 색의 진실, '색각이상'

초등학교 시절, 동그라미가 잔뜩 그려진 그림책을 보며 색맹 검사 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빨강, 초록 동그라미 속에 숨은 그림이나 숫자를 찾다가 몇몇 친구들은 잘 안 보인다고 서로 떠들곤 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러한 색이 잘 안 보이는 친구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인지하는 색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이 아니라, 대상이 부분적으로 흡수하고 반사하는 빛의 색이다. 그런데 이 색을 인지하는 사람의 '색각(빛의 파장을 느껴서 색채를 식별하는 눈의 감각)'은 개개인이 자신의 눈과 뇌신경계를 통해 만들어낸 다분히 주관적인 감각으로 인지한다. 따라서 같은 대상을 본다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색의 인식이 약간씩 다르다.

망막에는 어두운 곳에서 색을 감지하는 '막대세포', 밝은 곳에서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있는데, 이 중 원추세포는 빨강, 파랑, 초록을 감지하고 구별한다. 하지만 이 원추세포의 이상으로 색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색각이상'이라고 하며, 미세한 차이를 넘어 색을 완전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것을 '색맹'이라고 한다. 색을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정상인에 비해 구분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색약'이라고 구분한다. 즉 색약과 색맹은 모두 색소 결핍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색각이상은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해 사물이 무채색으로 보이는 완전 색맹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특정 색상에 대한 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색약 증상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녹색과 붉은색을 구분 못하는 '적록 색각이상', 노란색과 파란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청황 색각이상', 완전히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전색맹'과 모든 색이 탁하게 보이는 '전색약'이 있다. 색약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채도가 높은 색을 밝은 곳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눈과는 차이가 없지만 먼 거리에서나 어두운 곳에서, 또는 채도가 낮은 색을 단시간에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색약에 속한다. 이러한 색각이상은 전체 남자 인구의 약 5~8%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하다. 서양에서는 남자가 8%, 여자가 0.5%가 색각이상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전체 남자의 5.9%, 전체 여자의 0.4%가 색각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왜 색맹이 남성에게 유독 많을까? 색맹의 유전 형질은 남자와 여자에게서 다른 비율로 나타나는데, 특히 적록 색맹은 빨간색과 녹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남자 비율이 훨씬 높다. 적록 색맹이 남자에게 더 많은 이유는 색맹 유전자가 X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이다.



색각이상의 치료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사고, 약물 등에 의한 시신경의 이상이나 시손상으로 인한 후천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선천성이기 때문이다. 안경이나 렌즈로 색약을 보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색을 기존에 봐오던 것과는 다른 색으로 변형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계열의 색을 구분하기 어렵게도 만든다. 색각이상은 직접적으로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 색각이상자라면 대한민국에서는 공군 지원이 불가능하며, 해군은 색약 정도는 가능(전투병 제외)하다고 한다. 육군은 제한이 없지만 포병의 경우 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의 띠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운전면허시험에도 색각이상 검사를 하는데, 이 경우 색각 검사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색상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무슨 색인지 말해보라고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색만 보았을 때 무슨 색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도 색상 차이만 느끼면 통과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신호 체계는 녹▶황▶적(신호등 배치 상으로는 적▶황▶녹)의 순서로 통일되어 있어 일반적인 색약의 경우에는 신호등을 보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글 송선아 컬러개발팀 주임연구원



2016 HUE TEST 삼화페인트, 색인지 능력 우수!

2016 HUE TEST

지난 5월 삼화페인트 안산1공장에서 HUE TEST가 이루어졌다. 올해로 3년째 실시된 HUE TEST는 생산 부문과 연구소 연구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자가진단을 위한 일종의 색인지 테스트이다. 이것은 색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인원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어떤 색군에 대한 색인지 능력이 월등한지 또는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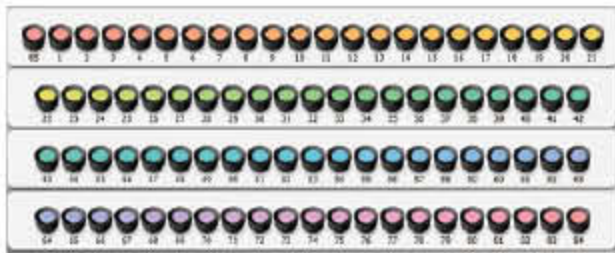
HUE TEST에 사용되는 FM 100 색상검사(Farnsworth-Munsell 100-HUE TEST)는 X-Rite사에서 개발된 톨로서, 40여 년 동안 동종 업계에서 색상을 보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15분 동안의 색배열 테스트를 통해 색감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과 단계별로 컬러를 정확하게 배열하는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다.

테스트를 위한 색상군은 R-Y, Y-G, G-B, P-R로 20개의 단계 변화를 갖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검수자는 정해진 15분 이내에 하모니 튜브나 라이팅 부스의 Daylight 광원(D65 광원) 아래에서 컬러의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 컬러칩을 배열한다. 색배열이 모두 끝나면 전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피검자의 결과에 대해 분석·평가를 내릴 수 있다.

FM 100 HUE TEST는 검사 시행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으나, 색각이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성 색각이상자의 추적 관찰에도 이용된다. 또한, 컬러를 보는 능력이 우수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컬러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삼화페인트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처럼 HUE TEST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의 좋고 나쁨에 좌우되기보다는 색인지 능력을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해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검 활동은 자신의 취약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알고, 관리하고자 함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HUE TEST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심각하게 색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임직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색인지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경우가 많았고 이전보다 향상된 경우도 상당히 많아 결과도 우수한 직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글 서우성 컬러개발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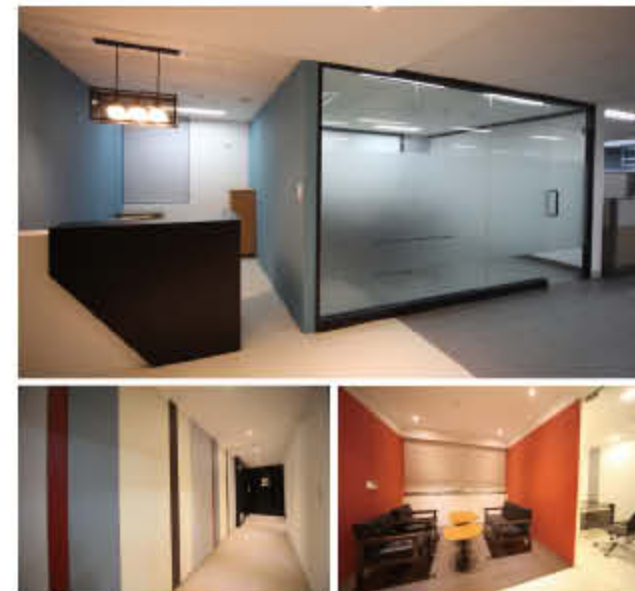


시공사 (주)Arc.코페/유림inc(주)
서울 강남구 역삼로550, 원영빌딩 4F / TEL 02.514.2108 / FAX 02.514.2102 / www.arcopco.co.kr

삼화의 컬러로 세상을 물들이다

지스마트글로벌 사옥 시공 사례

삼화페인트의 제품을 적용한 우수 시공 현장으로 서울 대치동 소재 지스마트글로벌 사옥이 선정됐다. 'SAMHWA-NCS COLLECTION 950'으로 색을 추출하고, 프리미엄 페인트인 '더 클래식'로 시공 완료된 이 현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시공된 현장은 상업공간을 전문으로 하는 (주)Arc.코페가 설계 및 시공을 맡았다. (주)Arc.코페 이현일 상무는 인터뷰에서 "기존에 사용했던 컬러들을 모두 삼화페인트로 바꾸었어요. 예전보다 컬러도 다양해지고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에도 활용하기에 무척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스마트글로벌 사옥은 전체적으로 목격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공간으로 완성됐다. 지루해지기 쉬운 복도를 스트라이프 배색으로 마감했고, 그레이와 중간톤의 컬러를 적절히 배치해 모던함을 잃지 않도록 연출했다. 블랙 컬러를 적용한 프레임과 세트백(Set Back)되어 있는 공간에 적용한 비비드한 오렌지 컬러, 그리고 휴식 공간의 넓은 벽면에 과감하게 마감한 오렌지 컬러는 사람들에게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블루 컬러와 레드 컬러를 톤다운시키고, 중간 지점을 무채색으로 배색하여 중성화함으로써 공간적인 세련미를 더욱 배가시킨 것이 눈에 띈다.



SH S 0502-Y

SH S 9000-N

SH S 1510-R90B

SH S 3020-B

SH S 8005-Y80R

SH S 4050-R

SH S 4030-B10G

맥주 애호가를 양성하는 중독성 취미 수제 맥주 만들기

고된 하루를 보낸 여름 밤 나에게 주는 가장 짜릿한 포상, 맥주 한 잔.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 캔을 보며 '뭐 색다른 거 없나' 생각한 적 있다면 삼화인 취미 만들기 4탄, '수제 맥주 만들기'를 만나보자. 집에서 술 만드는 건 너무 술꾼 같다고? 어른이니까 괜찮다.

글 김세라 | 포토그래퍼 김선재 | 장소 이태원 굿바이맥주공방



치열한 경쟁의 승리자, 8인의 삼화인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9시의 이태원. 이른 시간임에도 하나 둘 모여드는 삼화인들의 표정이 밝다. 그도 그럴 것이 맥주 만들기에 대한 삼화인의 관심이 높아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 이른바 '금손'으로 불려도 좋을 8인의 삼화인(김선아 사원, 박정현 선임연구원, 이지용 과장, 박상욱 책임연구원, 백승아 사원, 김필영 선임연구원, 이정훈 주임연구원, 고현석 연구원)은 저마다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공방에 자리를 잡았다.

알고 시작하자, 홈브루잉(Home-brewing)
국내 몇몇 공방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홈브루잉은 집(Home)에서 맥주를 양조(Brew)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예주가가 아니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맥주는 상표등록된 것만 2,000여 종이 훨씬 넘을 만큼 종류가 다양하다. 맥주 양조의 원리는 간단히 당(Sugar)과 효모가 만나 알코올+CO₂가 되는 알코올 발효 원리다. 사용하는 당의 종류는 주로 단당류로 대표적으로는 꿀, 맥아당이 있으며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사과 주스와 효모만 섞어도 쉽게 애플 사이드와 같은 술을 양조할 수 있다. 적당히 차갑게 해서 마시면 될 것 같지만, 맥주에도 테이스팅 기법이 있다. 우선 잔을 왼 손으로 온도를 느끼고, 빛깔이나 탁한 정도를 눈으로 즐긴 후 향을 맡는다. 그리고 마침내 마시게 되는데, 이때 맥주를 입 안 가득 머금은 상태로 공기를 살짝 들이마시면 그 길은 향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함께 마시는 상대에게 그 맛을 표현하는 것으로 맥주 테이스팅이 마무리가 된다.



보리 익는 2주일, 기다림의 미학

실습 전 강의를 듣는 삼화인들은 사뭇 진지했고 난도 높은 질문에서 평소 맥주에 대한 관심이 느껴졌다. 강의 중 시음시간에는 방금 배운 테이스팅 기법을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맥주의 가격과 맛의 관계, 맥주 거품의 성분, 국산맥주의 품질 논란 등 열띤 질문과 답이 오가는 사이 실습이 준비되었다. 실습에는 모든 삼화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고, 사용된 재료에 대해 꼼꼼히 체크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즐거움이 전해져 왔다. 강사의 "홈브루잉은 아주 쉽다, 10분이면 충분하다"는 단언에 고개를 가웃거리던 삼화인들은 순식간에 끝난 공정에 놀란 기색, 작업을 마친 후 드럼통을 달고 "이제 1주일을 기다리면 1차 발효가 완료됩니다. 1주일 더

두면 맥주가 완성되고요. 그래서 홈브루잉은 2주일이 즐거운 취미지요"라는 강사의 말과 함께 취미 클래스가 마무리되었다. 삼화인들은 오늘 만든 맥주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이나 대화를 나누다가 헤어졌다.

삼화 취미 클래스 4기 도전 킷이야기

클래스를 마친 삼화인들은 "바쁜 회사생활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취미 클래스가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입을 모았다. 또 "맥주뿐만 아니라 주류 전반의 해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다가울 회식자리에서 맥주를 마시면 아는 체 좀 해야겠다"고 밝게 웃기도 했다. "생각보다 공정이 훨씬 간단해 집에서 꼭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삼화인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느껴졌다. S

삼화취미클래스 5기를 모집합니다. <가을의 향기, 1일 바리스타>에 도전하세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한 그대에게 <삼화엔피플>이 선물하는 작은 즐거움! 이번 삼화 취미클래스 5기에서는 향기로운 가을의 정취, '1일 바리스타'에 도전합니다. 지금 삼화엔피플 편집실 이메일(speople@spi.co.kr)로 참여 신청을 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선정되신 분들께 별도 공지 드립니다.



Home-brewing

집에서 10분이면 충분! 수제 맥주 만들기



준비물부터 챙기자!

맥주킷, 효모, 설탕, 생수, 발효조(1차 발효용 드럼통), 소독용 에탄올, 거품기

*양조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 및 손은 에탄올로 깨끗이 소독해서 준비



맥즙 제조 ①

원하는 종류의 맥주킷을 구매하여 끓는 물에 5분 가량 담가둔다. 적당히 녹아 흐르는 상태가 되면 소독하여 준비한 발효조에 붓는다. 달라물은 내용물은 뜨거운 물로 헹궈내 함께 부어준다.



맥즙 제조 ②

준비된 설탕 1kg을 발효조에 붓는다. 맥즙의 점성 때문에 설탕이 잘 녹지 않으므로 뜨거운 물을 2ℓ 넣어준다. 거품기로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섞는다.



맥즙 제조 ③

미리 냉장고에 넣어 준비해둔 생수 12ℓ를 넣는다. 맥주 양조에 물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취향대로 사용하고 차갑게 보관했다가 넣는 것이 포인트.



에어레이션

거품기로 맥즙 제조 3단계까지 마친 내용물을 잘 젓는다. 이 과정을 통해 맥즙에 산소가 녹아 들어 효모의 증식을 돕게 되므로 10분간 세차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효모 피칭

준비된 효모를 내용물에 넣어준다. 단, 이때는 별도의 젓는 과정이 없는데 살아있는 효모가 자극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효

발효조 뚜껑을 닫은 후 공기차단기를 꼽아준다. 비디클을 끼고, 주변에 물을 채운 후 남은 조각을 얹어 밀폐한다. 상온에서 7일 발효 후, 내압병에 6~10g의 설탕을 넣고 밀폐하여 1주일 더 발효한다. 총 2주가 지난 후 2~3일 냉장보관하여 마신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열려라 맛지도!

무더운 날씨에 콧은 지치고 입맛을 잃기도 십상이다. 이럴 때 삼화인의 지혜를 모아 심신을 UP할 수 있는 맛집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방방곡곡 다니며 고르고 고른 이곳, 한자리에 모아봤다.



알싸한 매운맛에 중독되다! 동아냉면



서울의 5대 냉면집 중 한 곳을 꼽으라면 주저 없이 '동아냉면'이라고 생각한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로 나와 소방서 앞에서 우회전한 다음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요즘처럼 여름철이면 문전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다. 매콤한 편인데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어서 가끔씩 나도 모르게 그 맛에 끌려 그리로 향하고 있을 때도 있다. 맛있게 먹는 팁이라면 매운 비빔냉면에 만두를 같이 주문해 먹으면 궁합이 잘 어울린다. 아무리 맛집이라도 기다리는 것이 싫다면 본점 근처의 이태원 본점, 숙대입구 2개 본점과 홍대입구점을 찾아도 좋다.

메뉴 비빔냉면 5천 원, 물냉면 5천 원, 만두 5천 원
위치 서울특별시 중산구 우산대로 5
문의 02-796-2796

매콤한 비빔 스타일의 냉면을 좋아한다면
'동아냉면'을 꼭 맛보세요!

해외사업팀 김영일 차장

자타공인 대전의 대표 브랜드인 '성심당'은 4층 큰 건물 안에서 400여종의 빵과 과자, 케이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여타 빵집과 다른 점은 시간대마다 나오는 메뉴들을 시식해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이 인기몰이를 하게 된 이유인 듯하다. 적고구마와 타피오카 등을 넣은 토요빵과 호두를 넣어 만든 월넛 브레드, 부추빵 등이 인기 있고, 특히 소보로빵을 튀겨낸 튀김소보로는 특허까지 등록된 유명 제품이다. 본점을 방문하기 힘들면 대전역 내 매표소 부근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메뉴 튀김소보로 1천 5백 원, 부추빵 1천 8백 원, 토요빵 3천 5백 원
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0번길 15
문의 1588-8069

호불호 없는 명품 간식
튀김소보로, 그 명성은
영원합니다



마켓기획팀 박철희 대리

60년 전통의 전국구 빵집 성심당



탁 트인 전망에서 보는 서울의 멋 산모퉁이



맛집보다 멋집에 더 가까운 곳이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산모퉁이'라는 카페인데, <커피프린스 1호점>으로 알려져 있어서 아마 삼화 가족 중에는 가본 분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내와 종로 부근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북악스카이웨이 쪽으로 드라이브하다가 꼭 가는 곳이다. 탁 트인 시야와 함께 북악산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그렇게 멋질 수 없다. 아마 서울에서 이 정도 전망을 가진 커피숍이나 음식점은 없을 듯하다. 물론 시중 커피숍보다는 비싸지만, 이 정도는 눈이 호강한 비용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메뉴 카푸치노 8천 원, 아메리카노 7천 원(추가 3천 원)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 153
문의 02-391-4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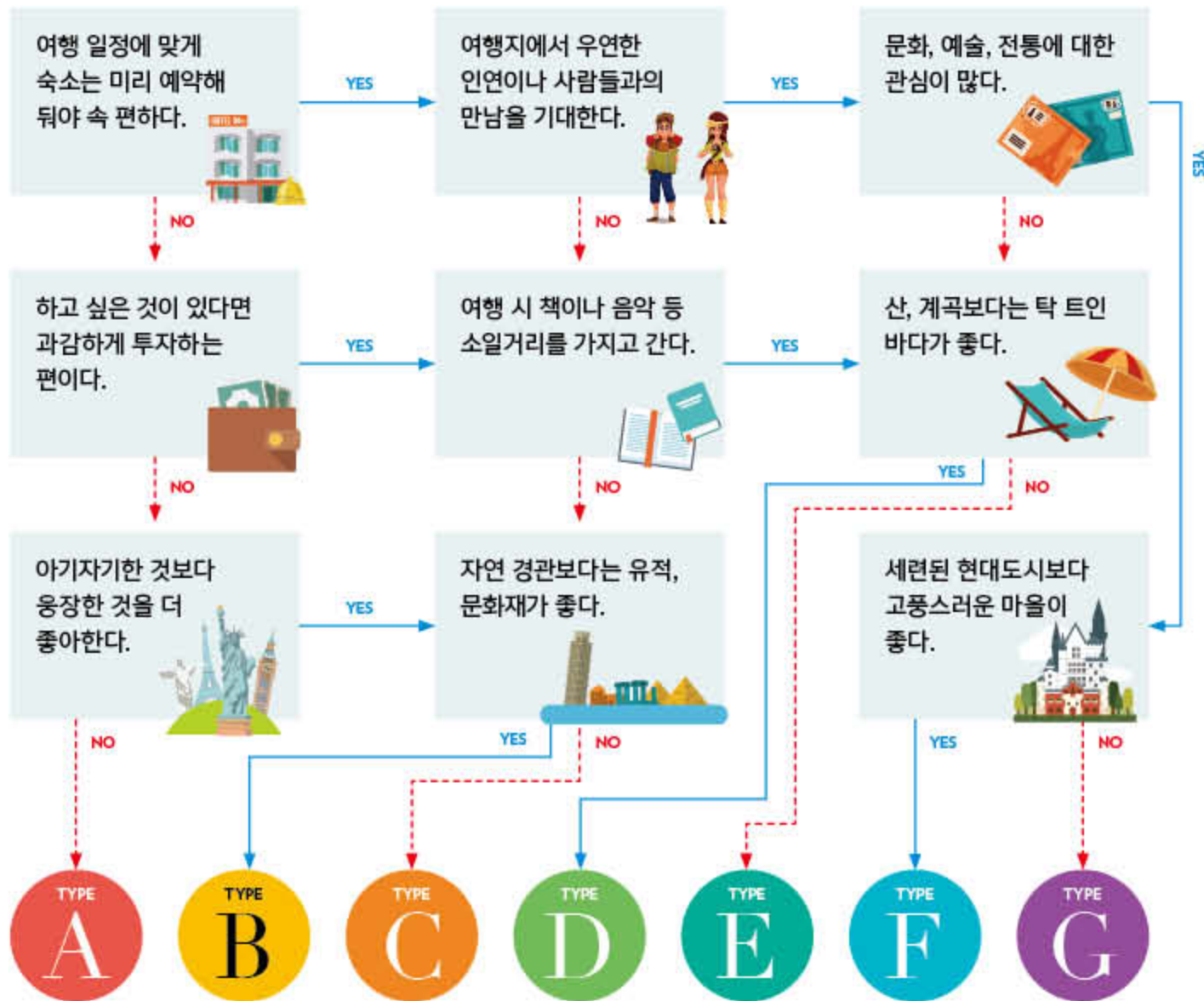
연인 또는 가족과 가시면 너무 좋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켓기획팀 최창표 대리

내 취향을 저격할 최고의 여름 휴가지는 바로 여기!

여름휴가를 위한 추천 여행지

이제 여름휴가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어쩌면 다소 늦은 때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자신의 여행 취향에 따라 미리 생각해보고 떠나는 여행은 더 많은 추억거리를 선사하는 법이다. 여기 간단한 셀프 테스트로 자신의 취향을 점검해보자. 꼭 테스트 결과대로 갈 필요는 없다. 소개된 여행지 모두 한 번쯤은 가봐야 할 장소들이니까.



TYPE A 한국의 나들리, 해양 문화를 알차게 구성한 이곳 '통영'

오밀조밀하고 소소한 재미거리를 찾기 좋아하는 당신, 아름다운 바다와 풍성한 역사, 여기저기 들러볼 것이 많은 통영에서 여행의 재미를 느껴보자.

TYPE B 한국 문화의 심장부, 도시 전체가 예술인 도시 '경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 당신, 한국 최고의 역사 도시 경주를 찾아가보자. 경주 곳곳에 가득한 역사와 함께 한다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다.

TYPE C 자연의 위대한 힘, 장대함에 압도되는 '몽블랑'과 '그랜드 캐니언'

웅장한 자연 경관에 감탄하는 당신, 유럽 최고봉 몽블랑산을 바라보는 샤모니몽블랑 전망대나 그랜드 캐니언을 브라이트 에인절 트레일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어떨까?

TYPE D 낭만과 휴식, 시간마저 느리게 지나는 곳 '한려해상'

일상에서 떠나 여유로움을 꿈꾸는 당신, 아름다운 섬들과 은화한 날씨가 반겨주는 한려해상공원을 추천한다. 울창한 숲과 화사한 풍경이 숨겨져 달려온 당신의 가슴에 쉼(休) 한 조각을 던진다.

TYPE E 대자연 속에 숨어 있던 보석, '아우타야' & '마추픽추'

신비한 전설과 수수께끼에 호기심이 발동하는 당신, 거대한 밀림 사이에 거장처럼 자리 잡은 고대 도시 '아우타야(태국)'와 '마추픽추(페루)'가 정말로 최적지가 될지.

TYPE F 이국적인 정취와 예술 향기가 넘치는 '중세 여행'

역사와 예술을 좋아하는 당신, 유럽의 중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크로아티아나 일본 문화의 진수인 교토 여행은 어떨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이다.

TYPE G 역사와 문화, 젊음이 어우러진 도시 '파리'

로맨틱하고 장강 넘치는 당신, 문화와 예술에 대한 동경이 있는 당신에게는 유럽 문화의 수도인 파리만한 곳이 없다. 이곳에서 특별하고 우연한 만남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듯.



떠나는 그대에게 건네는 꿀팁

1 BURTON 'BEERACUDA 맥주가방' 캠핑장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데, 아이스박스까지 챙기기는 거주장스럽다면 맥주가방을 이용하자. 355ml 5캔이 딱 들어가는 사이즈에 보냉 기능이 있어 어디서나 간편하게 차가운 맥주를 즐길 수 있다.

3 SK 'UO 스마트 빔2' 캠핑은 지루하다. 는 편견을 깨는 제품. 해진 숲 속 스마트 빔만 있다면 언제든 텐트 안은 로맨틱한 영화관으로 변신한다. 여자친구나 아이와의 캠핑을 계획하고 있다면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다.

5 FIRE CUBE '파이어 큐브' 야외 취침에 바비큐는 실과 바늘, 숯불구이 바비큐가 먹고 싶은데 토치도 없고 불 불이다가 다칠까 무섭다면 파이어 큐브가 필수다. 라이터로 종이 점화카에 불을 붙인 후 숯이 활활 타오르기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바비큐 준비가 끝나는 간편 아이템.

휴가의 계절 여름.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도시 혹은 자연의 품으로 뛰어든 당신의 캐리어 속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을 소개한다. 글 김세라 | 자료 제공 편산

7 어크로스디자인 'Matador Droplet' 여름여행의 필수 코스 물놀이, 시계나 카드지갑 등의 소지품을 물에 젖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드라이백이다. 평소에는 돌돌 말아 여행용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 큰 장점. 이미 물에 젖은 수영복 등을 담아 올때도 유용하다.

9 waywearable '자외선 피부측정기 WAY' 여행에서 돌아온 후 급격히 피부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야외활동 중 돌돌이 자외선과 습도를 체크해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것. 자외선과 습도 외에 생리주기, 땀 섭취량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제품이다.

11 UNIX '미니 플랫 아이론' 인생샷을 남겨야 할 여행 명소에 도착했는데, 하필 습한 날씨로 머리가 엉망이라면? 사이즈는 미니멀하지만 성능은 파워풀한 아이론 하나면 걱정할 필요 없다. 특히 모를 여행지에서의 로맨스에도 담당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



그 남자의 캠핑가방



2 DEW Corp. '2WAY BOTTLE 탄소 정수 물병' 시설이 열악한 곳에서 하루 밤 보내게 됐을 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식수문제. 생수가 없다면 탄소 정수 물병의 정수기능에 의지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돗물만 담아봐도 염소냄새가 제거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4 MAX-PI 'M4 블루투스 스피커' 코펠에 밥을 안칠 때도, 텐트 안에 모기약을 살포할 때도 '내 인생은 늘 BGM과 함께하지라고 주장하는 당신을 위한 제품. 블루투스 기능은 기본, 숲 속 보호색을 띠는 센스 넘치는 외관과 생활방수 기능으로 남성 유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스피커다.

6 미니멀웍스 'LAZY 야전 침대' 부피가 부담스러워 가벼운 캠핑에는 들고 갈 수 없었던 야전침대가 미니멀&릴러플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가볍게 뒹 수 있는 사이즈지만 조립하면 바닥과의 높이도, 폭이나 길이도 꽤나 안락하다. 야외에서 햇살과 바람을 즐기며 여유 부리기에 딱 좋은 소품이다.



그 여자의 여행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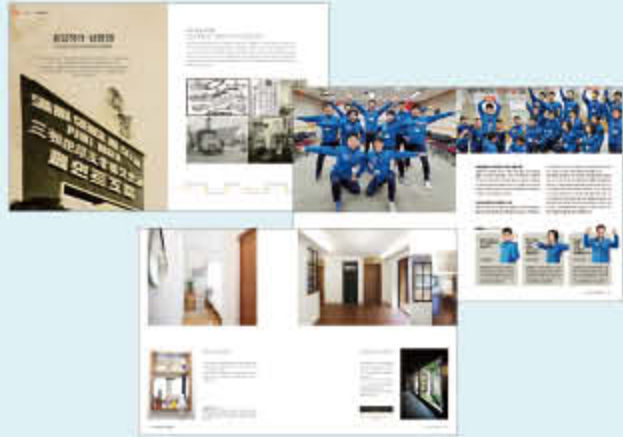
8 SHAPLE '샤플 스마트 보트' 해외 여행 캐리어에 공간 먹는 하마가 있으니 삼푸, 트리트먼트, 비디삼푸 등의 워시 제품들이 다. 넓은 주입구로 리필이 간편한 것은 물론, 벽에 부착할 수 있는 고무 흡착판도 달려있다. 포장용 지퍼백까지 미국교통안전국 TSA의 인증을 받아 기내반입이 가능한 여행 특화 상품.

10 CNP '퀵싱 S.O.S 마스크' 자외선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 재빠른 관리가 필수. 피부 진정 효과가 뛰어난 마스크팩을 상비약처럼 챙겨가면 말썽 없는 맑은 피부를 돌아올 수 있다.

12 Dione 'DEO COOL' 더운 날씨에 온몸이 땀으로 끈적이면 컨디션 저조를 겪기 쉽다. 샤워가 간헐한 순간을 쾌적하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DEO COOL'. 언뜻 물티슈 같지만 거드방이, 목, 발을 닦아주면 끈적임과 냄새는 씻어주고, 보습보송한 촉감과 베이비파우더 향을 남긴다.

S Mail Box

'독자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가 <삼화엔피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감이나 의견을 귀하게 들겠습니다. 채택된 사연은 정성껏 마련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삼화페인트 70주년 기념으로 다룬 'STORY 1, 2' 기사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한 분야에 집중하여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회사들의 면면으로 보며 역시 삼화페인트가 대단하구나 싶었습니다. 오늘의 삼화페인트를 만든 일등공신인 다양한 제품들의 스토리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독자 고객 우순자님

■ 계속 발전해 나가는 삼화페인트 사보의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음 호에는 만화나 폰트 코너를 삽입하면 참신하듯 웃으면서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구독하고 있는 열혈 독자가기에 기대가 큼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삼화페인트 사보와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독자 고객 오영진님

■ 삼화페인트의 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보를 보기 전에 삼화페인트가 70년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보를 통해 살펴보니 새삼 그 저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70년을 발판 삼아 700년 기업으로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삼화페인트에서 고회를 맞고 싶어요! _안전영업소 진평화 선임과장님

■ 70주년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0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 다니다난했던 시절을 보냈으나, 삼화페인트를 다니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미래, 기술자로서의 자존심까지 삼화페인트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삼화페인트는 저와 가족에게 동반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_CR도로팀 강현호 책임연구원님

■ 올 여름, 카페 창업의 목표로 하고 있는 독자입니다. 삼화페인트를 구입하면서 우연히 사보를 보게 됐는데, 인테리어 소개 코너를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자연주의 콘셉트와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좋은 정보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삼화페인트의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화페인트 파이팅! _전북 정읍시 이자선님

■ <SAMHWA & PEOPLE> 봉호는 대한민국의 색과 아름다움을 책임져온 삼화페인트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내용이라서 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명멸하는 가운데 오로지 페인트만을 지켜온 삼화페인트의 진면목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100주년에는 어떤 모습일지 더욱 기대됩니다. _서울구로구 이춘성님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S QUIZ에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10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전북 임실군 이동만님 / 경기 안산시 박재규님 / 전주 완산구 이세용님 / 경기 안산시 김정희님 / 부천 소사구 한광순님 / 경기 안산시 김석춘님 / 전주 황강서원 오현오님 / 경기 평택시 우순자님 / 대전 대덕구 김태훈님 / 경기 안산시 김홍성님

*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호 퀴즈정답

- A - ② 
- B - ③ 
- C - ① 

S Quiz

알쏭달쏭 퀴즈 이벤트

사진과 관계된 기사 내용은 무엇일까요?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보세요(예 : A-①, B-②...).
그리고 내용 중 빈칸의 단어를 채워 정답을 보내주세요. 이번 호 <삼화엔피플>을 읽어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국내 몇몇 공방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 ○○○○은 집 (Home)에서 맥주를 양조(Brew)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애주가가 아니라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맥주는 상표등록된 것만 2,000여 종이 훨씬 넘을 만큼 종류가 다양하다.

A

①



서울시민과 경기도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공원인 서울대공원에 삼화페인트가 '동물원 ○○○○' 행사에 참여하고 친환경 페인트 제품을 후원했다. 삼화페인트는 앞으로 단순한 페인트 후원을 넘어, 사회와 기업이 함께 행복해지는 상생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 지속할 계획이다.

B

②



무리에 섞이고픈 심리가 유행이라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심리는 개성으로 드러난다. 스티브 잡스처럼, 지브리 스튜디오처럼 자기만의 개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을 '○○○하다'라고 말하는 요즘, 유니크함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자 영원한 화제의 중심이다.

C

③



<삼화엔피플>이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하나. <삼화엔피플>을 읽고 좋았거나 재미있었던 기사, 또는 개선되었으면 하는 제안이 있다면 간단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어 소개된 내용은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둘. 알쏭달쏭한 퀴즈를 풀고 정답을 <삼화엔피플> 편집실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우송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때 꼭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주세요!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 speople@spi.co.kr

삼화엔피플 사내기자단

- | | |
|---------|--------|
| 마케팅팀 | 박철희 대리 |
| 마케팅팀 | 김예슬 대리 |
| 마케팅지원팀 | 백승아 사원 |
| 경영관리팀 | 김현정 과장 |
| 연구지원팀 | 김필영 선임 |
| 해외협력팀 | 김병준 대리 |
| 사업관리팀 | 한광수 과장 |
| 컬러개발팀 | 이미리 대리 |
| 삼화로지텍 | 임형빈 차장 |
| SM2네트웍스 | 허현아 사원 |

SH S 3040-B70G

SH S 1040-Y30R

SH S 0505-Y50R

삼화로
유니크하다

SH S 1030-B60G

SH S 3060-R80B

SH S 1050-B30G

SH S 4040-B

SH S 0540-B30G

unique